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백승도

본 연구는 안보의식 측정문항을 도출하고,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안보의식 측정문항 30개를 도출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 만족도, 자긍심, 안보의식 등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안보상황($t=5.658$, $p=.000$)과 국방신뢰($t=4.485$, $p=.003$), 참여도($t=5.040$,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긍심($t=1.606$, $p=.109$)과 만족도($t=-1.344$, $p=.183$)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보상황($\beta=.250$), 참여도($\beta=.226$), 국방신뢰($\beta=.196$)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성별($t=7.839$, $p=.000$), 군복무 여부($t=-5.394$, $p=.000$), 학년($F=9.891$, $p=.000$)은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F=1.407$, $p=0.199$)로는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안보의식, 국가안보, 안보정책

1. 서론

국가의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한 시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김기정, 2004: 64).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 학자마다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931회에 걸쳐 국권이 침탈되는 외침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그 어떤 가치도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는 명제는 역사의 교훈이고 엄중한 경고이며, 안보의식 결여는 국가 존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희생과 회복이 불가능한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에 안보의식 확립은 국가에 필요한 최우선적인 과제이다(김중영 등, 2008: 214-215).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이다. 이는 변화되는 안보상황에 부합된 안보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안보 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의 소산으로 판단된다.

국민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의 안보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보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안보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활발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나 안보의식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국민 안보의식 실태조사 및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 이고,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안보의식의 영향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문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안보의식 측정문항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실제 지각하고 있는 안보의식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안보의식 구성요인들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논의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 분석은 SPSS 19.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안보의식의 개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반활동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¹⁾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풀이된다. ‘안전보장(安全保障, security)’의 준말인 ‘안보’는 원래 그 어의적 측면에서 보면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비롯된 것이다. ‘securitas’는 ‘se’와 ‘curitas’의 합성어로서 ‘se’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무엇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curitas’는 불안, 걱정, 근심을 뜻하는 것이다(이택철, 1997: 329). 따라서 안보란 위협이나 위기, 침해와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불안,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보는 통상 내·외부 위협 및 위협에 대한 국토, 주권, 재산 등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길병옥, 2008: 1).

이러한 안보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절대안보(Absolute Security)’²⁾ 개념으로 정형화되었고, 탈냉전의 과정에서 ‘공동안보(Common Security)’³⁾,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⁴⁾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가 진행되면서 신현실주의가 대두되어, 현대

1)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 국제연맹시대의 유럽에서 독일의 보복을 두려워한 프랑스가 자국을 비롯한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대외적 위협(주로 독일)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발단되었다(김희상, 2003: 22).

2) 절대안보는 일방안보라고도 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건설하여 상대방의 전쟁시도를 억지하며, 유사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조남진, 2010: 75).

3) 공동안보는 국가의 안보를 자조나 타국과 동맹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다자적 협력을 통해 전체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맥락 속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집단안보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안보는 집단안보 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함택영·박영준 편, 2020: 267)

4) 협력안보는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목적을 달성하

의 복합적 안보요소의 발전으로 다차원·포괄적·총체적·체계적 안보개념이 종합적 정책과학으로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⁵⁾ 개념은 종래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른바 「고위정치(High Politics)」 중심의 개념에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측면의 「하위정치(Low Politics)」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늘날 안보개념은 이와 같은 안보위협들의 다양화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 환경, 에너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종합적 안보개념을 의미한다(박광철, 2011: 17-18).

최경탁(1989: 29-39)은 안보를 '군사,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군사, 과학기술에 있어서 제반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나아가 불신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안보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보의식은 '한 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그 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안보가 정부나 군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주체가 국민 전체로 파악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안보의식은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처능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김병조, 1994: 35). 그리고 이러한 안보의식은 안보개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김종영 외, 2008: 217).

안보개념이 안보위협들의 다양화에 따라 정치·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 환경, 에너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종합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안보의식도 다음과 같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최근의 안보의식은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식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식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의식까지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둘째, 비군사적 위협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식도 안보의식에 포함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보자체를 위기관리개념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셋째, 최근의 안보 의식은 통일, 국제안보와 같은 국제정치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치중하여 안보를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군사문제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종영 등, 2008: 218).

고자 하는 것이다(조남진, 2010: 83).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요인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안보와 유사하고, 상대국의 군사체제를 인정하고 안보이익과 동기를 존중하여 상호공존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동안보와 유사하다(하영선(편), 2002: 219).

5) 포괄적 안보는 아세안 국가연합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1990년대 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안보개념으로 시작하여 경제적 협력과 지역적 노력 그리고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약을 통하여 상호의존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발전되었다(강진석, 2005: 27).

따라서 안보개념 자체가 안보위협요소를 다면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국민 안보의식에 대한 연구도 대북한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위협요소에 대한 인식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보의식의 개념은 당해 국가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요소를 포함한 사회전반적인 측면과 국제정치 등 국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국민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과 개인에 의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범주로 첫 번째는 특정 시기 또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안보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정한울, 2010; 행정안전부,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두 번째는 안보의식 구성요인의 도출 및 상관관계 분석, 세 번째 유형은 문헌연구를 통한 안보의식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김종영 외, 2008; 이철상, 2005)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안보의식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병조(1994)는 안보의식 구성요소를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국방 및 군에 대한 인식 등 6개 요소로 구분하고 요소별 안보의식지수를 산출하여 안보의식 취약층을 규명하였고, 이영균(2002)은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분석을 대외적 변수와 대내적 변수 그리고 국가안보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특히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성장, 전투력 강화,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안보교육 강화, 주변국의 군사력, 대통령 안보관, 지도층 인사의 안보관, 강대국의 자국이익 추구자세 순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하여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요인을 도출하고 인식수준을 분석한데 의미가 있다. 김기정(2004)은 국민 안보의식을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위협의 대상, 위협의 정도, 미래의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안보 확보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인식(한국의 방어력 및 방어의 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한·미동맹에 관한 국민의식, 국제정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김용현·박영주(2011)는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국내적 요인(개인적 요인과 군 및 정부기관 신뢰도, 국가만족도)과 국제적 요인(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정도 및 북한의 위협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들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병삼·조상근(2011)은 사관생도들이 지각하는 안보의식의 구성요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안보의식을 안보상황에 대한 관심, 직업적 정체감, 애국심, 항재전장의식, 대적관, 보안의식 등의 여섯 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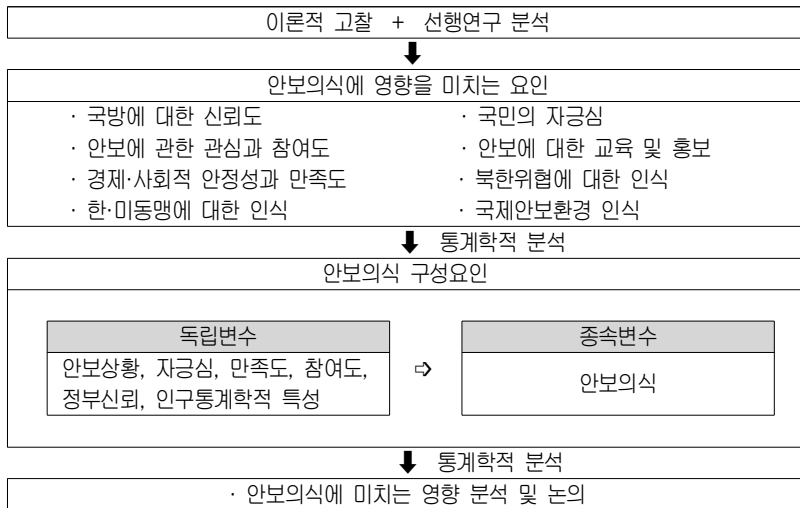
6) 대외적 변수(주변 4대강국에 대한 시각,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 집단안보체계에 대한 시각), 대내적 변수(북한에 대한 시각, 국가체제와 국방정책에 대한 시각, 군 및 안보역량에 대한 시각, 남북관계와 민족통일에 대한 시각, 전쟁에 대한 시각) 국가안보의식(안보의식에 대한 상태, 국방에 대한 인식,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에 대한 인식)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국민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방에 대한 신뢰도, 국민의 자긍심, 안보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 안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회적 안정성과 만족도,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국제안보환경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분석의 틀

안보의식과 관련된 기존이론을 종합해 보면 안보의 개념은 정치,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국민 안보의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안보의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속성을 포함함이 타당하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안보의식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독립변수인 5가지 구성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수인 안보의식에 어떠한 영향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 관심사이다.

<그림 1>연구 흐름도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 까지 22일 동안 각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지역별 특성이 고루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수거 결과 총 641부의 표집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기입하지 않은 표집,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총 622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19	51.3	지역별	서울, 인천	128	20.6
	여자	303	48.7		경기도	155	24.9
학년	1학년	156	25.1		강원도	45	7.2
	2학년	153	24.6		충청도	78	12.5
	3학년	167	26.8		전라도	81	13.0
	4학년	146	23.5		경상도	114	18.3
군복무	복무	130	20.9		제주도	14	2.3
여부	미복무	492	79.1		기타	7	1.1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36개의 예비척도 문항을 작성⁷⁾하여 총 110명에게 설문조사하여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하여 총 30개 문항의 측정도구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된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군복무·지역은 명목척도를 학년은 순서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있어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했다. 안보의식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을 지각하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술통계와 탐색적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7)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2010), 김용현·박영주(2011), 행안부 국민안보의식조사(2010), 이영균(2004)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일부문항은 수정·보완 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다항목으로 측정된 안보의식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⁸⁾.

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총 30개의 문항이 6개의 요인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총분산은 51.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51, 0.783, 0.667, 0.659, 0.647, 0.564로 신뢰도⁹⁾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 목	요 인 분 석						신뢰도	
	1	2	3	4	5	6	Alpha if Item Delete	Cronbach's Alpha
F1	북한정권위협세력	.717					.840	.851
	한미연합훈련필요	.683					.833	
	북군사력위협	.675					.833	
	테러대비필요	.653					.844	
	북한도발가능	.642					.833	
	주한미군중요	.605					.830	
	국제협력필요	.570					.840	
	국제평화유지활동	.567					.836	
	정부안보교육필요	.524					.841	
미국협력지속필요	.510					.838		
F2	비상대비수준		.739				.729	.783
	전반적안보상황		.715				.780	
	국방부발표신뢰		.641				.734	
	국민안보대비훈련		.630				.764	
	정부안보정책추진		.629				.735	
	군 신뢰		.424				.774	
국방력수준		.422				.769		

8)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송지준, 2011: 89).

9) 신뢰도는 각 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로 나타낼수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탐색적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0.5 내지 0.6 이상의 값이면 무방하다(김은정·박양규·박중재, 2001: 224).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계속)

항 목	요 인 분 석						신뢰도		
	1	2	3	4	5	6	Alpha if Item Delete	Cronbach's Alpha	
F3	한국국민자랑		.747				.495	.667	
	한국전통자부심		.721				.558		
	한국미래희망적		.561				.664		
F4	학교안보교육필요			.634			.533	.659	
	전쟁시참여			.547			.547		
	국가위해희생감수			.508			.643		
	직업군인권유			.488			.631		
F5	경제적만족				.714		.551	.647	
	현생활만족				.581		.592		
	사회질서만족				.521		.505		
F6	본인안보수준					.682	.499	.564	
	안보태세걱정					.656	.368		
	안보문제관심					.563	.507		
Eigen-value		4.506	3.338	2.110	1.942	1.924	1.772		
분산설명(%)		15.02	26.15	33.18	39.65	46.07	51.97		
KMO								.91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5667.752	
유의확률								.000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KMO¹⁰⁾ 값은 .912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사치가 5667.752 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는 6개의 요인과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용 및 요인 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에는 10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과 국제적 위협,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등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안보상황’으로 명명했다. 요인 2는 7개의 문항이 부하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은 군 및 정부의 안보정책 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국방신뢰’로 하였다. 요인 3은 3개의 문항이 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나타내는 내용으므로 ‘자긍심’으로 하였다. 요인 4는 4개 문항이 부하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이 국가 위기시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참여도’라 하였다. 요인 5는 3개의 문항이 부하되어 문항의 내용이 생활과 경제적 여건, 사회질서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만족도’로 하였다. 요인 6은 3개 문항이 부하되었는데, 문항의 내용이 안보의식 관련 내용이므로 ‘안보의식’이라고 하였다.

10) KMO(Kaiser-Meyer-Olkin)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9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송지준, 2011: 71).

2. 안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의수준 .01에서 요인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¹¹⁾. 따라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 삼고 회귀분석을 통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연구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rrelations)					
			1	2	3	4	5	6
1. 안보상황	3.8121	.68759	1.00					
2. 국방신뢰	3.0032	.68629	.180**	1.00				
3. 자 금 심	3.4662	.71248	.482**	.280**	1.00			
4. 참 여 도	3.3207	.75248	.531**	.443**	.364**	1.00		
5. 만 족 도	3.1533	.80196	.311**	.556**	.350**	.407**	1.00	
6. 안보의식	3.2513	.74131	.419**	.327**	.303**	.446**	.244**	1.00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 안보의식 구성요인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 4>는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안보상황은 안보의식을 17.5% 설명하고 있으며¹²⁾, 안보상황($t=11.485, p=.000$)은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국방신뢰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6.6%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보상황($t=10.451, p=.000$)과 국방신뢰($t=7.320,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자긍심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3은 안보의식을 24.5%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2에 비해 0.4% 더 설명하고 있다. 안보상황($t=8.533, p=.000$)과 국방신뢰($t=6.765,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긍심($t=1.690, p=.091$)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상관관계분석이 두 변수간 변동의 연관성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 R^2 은 설명력 혹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4>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독립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SE	β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152	-	10.046 (.000)	.171	-	5.123 (.000)	.177		4.515 (.000)	.174	-	4.461 (.000)	.174	-	4.519 (.000)	
안보상황	.039	.419	11.485 (.000)	.038	.372	10.451 (.000)	.043	.341	8.533 (.000)	.047	.243	5.541 (.000)	.048	.250	5.658 (.000)	.602
국방신뢰				.038	.261	7.320 (.000)	.039	.247	6.765 (.000)	.042	.170	4.349(.000)	.047	.196	4.485 (.003)	.615
자긍심							.043	.069	1.690 (.091)	.042	.058	1.431 (.153)	.042	.065	1.606 (.109)	.712
참여도										.044	.220	4.934 (.000)	.044	.226	5.040 (.000)	.586
만족도													.040	-.058	-1.334 (.183)	.626
통계량	R ² = .175 수정된 R ² =.174 F=131.914 P=.000			R ² = .241 수정된 R ² =.239 F=98.339, P=.000			R ² = .245 수정된 R ² =.241 F=66.708 P=.000			R ² = .273 수정된 R ² =.269 F=58.007 P=.000			R ² = .275 수정된 R ² =.269 F=46.820 P=.000 Durbin-Watson=1.849			

모델 4는 모델 3에서 참여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4는 안보의식을 27.3%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3에 비해 2.8% 더 설명하고 있다. 안보상황(t=5.541, p=.000)과 국방신뢰(t=4.349, p=.000), 참여도(t=4.934,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긍심(t=1.431, p=.153)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5은 모델 4에서 만족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5는 안보의식을 27.5%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4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다. 안보상황(t=5.658, p=.000)과 국방신뢰(t=4.485, p=.003), 참여도(t=5.040,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긍심(t=1.606, p=.109)과 만족도(t=-1.344, p=.183)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안보상황(β =.250)이 안보의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참여도(β =.226)로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다. 세 번째로는 국방신뢰(β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¹³⁾.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고,

13) 상대적 영향력은 최종 모형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화 계수인 베타(β)값의 절대치를 보고 판단한다. 여기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된다(송지준, 2011: 168).

Durbin-Watson은 1.849로 기준값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군복무 여부, 학년별, 지역별)에 따라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으며, 성별($t=7.839, p=.000$), 군복무 여부($t=-5.394, p=.000$), 학년($F=9.891, p=.000$)은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F=1.407, p=0.199$)로는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및 군복무에 따른 안보의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성 별	남 성 (n=319)	3.47	7.839	.000
	여 성 (n=303)	3.02		
군복무여부	복 무 (n=130)	3.56	-5.394	.000
	미복무 (n=492)	3.17		

즉, 성별에 따라 안보의식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이 각각 3.47, 3.02로 남성이 여성보다 안보의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여부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경험한 인원이 안보의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라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있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안보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년별 및 지역별 안보의식 인식

종속변수	학 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안보의식	1학년(a)	3.07	.752	9.891/.000	d>a,b c>a
	2학년(b)	3.12	.681		
	3학년(c)	3.33	.717		
	4학년(d)	3.47	.750		
안보의식	서울·인천	3.21	.687	1.407/0.199	-
	경기도	3.21	.768		
	강원도	3.33	.791		
	충청도	3.31	.756		
	전라도	3.39	.776		
	경상도	3.27	.690		
	제주도	2.90	.659		
기 타	3.25	.74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낮은 평균점수를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4학년과 1·2학년, 3학년과 1학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안보의식을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 함의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 등이 안보의식에 정(+)¹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보상황, 참여도, 국방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요인들이 안보의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보의식이 군사·비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한국적 여건에서는 군사분야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 생활 만족도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안보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요인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보상황, 국방신뢰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안보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긍심은 안보상황 및 참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만족도는 국방신뢰 및 참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간접적으로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 군복무 여부, 학년에 따라 안보의식을 지각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안보의식을 높게 인지하는 것은 안보위협 주요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¹⁴⁾와 여성들이 구체적인 정책 사안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¹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복무자가 미복무자보다 안보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군복무 경험이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안보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¹⁶⁾, 고학년일수록 안보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고학년으로 진행되면서 급격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없는 것은 교통 발달과 인터넷 등의 원활한 정보 교류로 인해 과거에 나타나던 지역별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차이¹⁷⁾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이가 구체적 정책 사안이나 현안문제보다 추상적 정책 기조나 일반적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 안보위협요인에 관하여 남성과 여성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진다 ... 남성보다 여성이 국내적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 특히 정치 보다 경제적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이옥연, 2004: 217).

15) 남성의 평균 '모름/무응답'이 8.9%, 여성의 평균 '모름/무응답'이 13.3%(이옥연, 2004: 205).

16) 군 복무 기간 중에 받은 정신교육이 올바른 안보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대후에도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게 될 것(김종영 등, 2008: 236).

17) 권역별·지역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권역별: $F=6.6410$, $P<.001$, 지역별: $F=2.7469$, $P<.001$)(박균열, 2004: 203).

IV. 결론

본 연구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보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안보의식 구성요인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측정문항은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자긍심’, ‘참여도’, ‘안보상황’, ‘만족도’, ‘국방신뢰’, ‘안보의식’ 등의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의식의 구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박영주(2011)가 제시한 생활만족, 교육필요, 군·정부 신뢰정도, 안보보도 관심, 국민자긍심, 민주주의 중요성, 국제협력 중요성, 미국 중요성, 북한 긍정성 등의 구성요인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생도용 안보의식 척도를 개발한 정병삼·조상근(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직업관, 애국심, 항재전장, 대적관, 보안의식 등의 구성요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가 안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보상황, 참여도, 국방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도와 자긍심은 안보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 등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군복무자가 미복무자보다, 고학년이 저학년 보다 안보의식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보상황, 참여도, 국방신뢰 등의 인식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별·군복무 여부·학년별로 안보의식을 상이하게 인지하는데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안보상황 인식 제고를 위해서 변화된 안보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국민안보교육프로그램이 정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권안보적 차원의 일관성 없는 주입식 안보 교육정책으로는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한반도의 특수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개방적 논의를 통해 국가안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문제 등에 있어서 솔선수범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고와 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보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대와 신뢰감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경주(2011: 28-29)에 의하면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정부의 모호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정책 입안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평상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안보현장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보상황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긍심과 만족도는 안보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의식이 군사·비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한국적 여건에서는 군사분야 등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안보의식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안보의식 측정문항과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본추출에 있어 비확률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한 안보의식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연구 결과를 국민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법을 활용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석. 2005.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서울: 평단.
- 길병욱. 2008. 안보와 경제발전 세미나.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기정. 2004.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4(7): 64-83.
- 김병조. 1994.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국민안보의식 분석. 국방연구. 37(2): 36-37.
- 김은정 · 박양규 · 박중재. 2001. SPSS 통계분석 10. 서울: 21세기사.
- 김용현·박영주. 201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 관리논집. 7(1): 195-198.
- 김종영 · 황중호 · 이규용. 2008.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전략논단. 9: 214-233.
- 김희상. 2003.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 박광철. 2011. 통일한국의 군사전략과 적정 군사력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균열. 2004. 국가안보의식과 도덕교육.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14: 203.
- 송지준. 2011. SPSS/AMOS 통계분석 방법. 서울: 21세기사.
- 이영균. 2002.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1): 52-53.
- 이옥연. 2004.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국방연구. 47(2): 199-220.
- 이철상. 2005. 역사의식, 그리고 국가 안보의식. 군사논단. 41: 128-150.
- 이택철. 1997. 국민 안보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안전보장논총. 23.
- 조남진. 2010. 국가안보의 이해. 서울: 노드미디어.
- 전경주. 2011. 안보·국방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국방연구원 연례 전략 보고서.

- 정병삼·조상근. 2011. 안보의식의 구성요인 탐색. 국방연구. 54(1): 156-157.
- 정한울 등. 2009. 여론조사를 통해 본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동아시아 연구원.
- 최경락 등. 1989. 국가안전 보장 서설. 서울: 법문사.
- 하영선(편). 2002. 21세기 평화학. 서울: 한빛.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함택영·박영준 편. 2010.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주)사회평론.
- 행정안전부. 2010. 국민 여론 조사.

白承道: 충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관심 분야는 국가안보, 인물리더십 등이다(lion1160@naver.com).

투 고 일: 2012년 01월 13일

수 정 일: 2012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 2012년 02월 22일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Sense of Security of Students

Seung Do Baek

This study has a goal to create questions to measure the sense of security,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security of college students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graphy statistics lead to difference in establishing the sense of the security. Pre-research creates 30 questions. The analysis of factors using SPSS 19.0 program resulted in 6 following factors: security situations, confidence in military, attendance, satisfaction, pride, sense of security.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ecurity situations($t=5.658$, $p=.000$), the confidence in military($t=4.485$, $p=.003$) and the attendance ($t=5.040$, $p=.000$) favorably affect the sense of security. The pride ($t=1.606$, $p=.109$) and the satisfaction statistically does not influence on one.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 sense of security states that the first is the security situations($\beta=.250$), the second is the attendance($\beta=.226$), the third is the confidence in military($\beta=.196$). The demography statistics shows that the sex($t=7.839$, $p=.000$), the military service($t=-5.394$, $p=.000$) and the grade($F=9.891$, $p=.000$) statistically hav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recognizing the sense of the security. The region($F=1.407$, $p=.000$) does not have the meaningful difference.

Key words: the sense of security, national security, security policy